



전라지역

느티나무

여동생이 죽어 화신한 느티나무

✳	지정번호	전주-9-1-30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지정년도	2015		교동 65-67
	관리가관	전주		35° 48' 48.95" N
	수령	510년		127° 09' 11.29" E
	수고	12m		
	흉고둘레	4,5m		

전주시의 오목대 입구에 있는 보호수(전주-9-1-30) 느티나무는 전주한옥마을이 내려다보이는 돌레길의 동산 비탈에 자라고 있다. 오목대梧木臺는 고려 우왕 6년(1380) 이성계가 남원 운봉 황산에서 왜구를 무찌르고 돌아가는 길에 이 곳에 들러 종친들과 전승 축하잔치를 벌인 곳으로 유명하다. 이를 기념한 고종의 친필비가 서 있다. 현재 이곳은 기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느티나무는 산책길의 급경사지에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5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2m, 가슴높이둘레는 45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3m 가량이며, 위쪽이 주변의 나무들과 겹쳐 있다. 원줄기는 밑동에서 작은 가지가 옆으로 뻗어 있으며, 주 줄기는 높이 3m 정도에서 2갈래로 갈라져 있다. 줄기 밑동의 한쪽은 높이 4m 정도까지 총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죽은 자의 넋과 관련이 있다. 옛날 이곳에는 몹쓸 전염병에 걸린 부모가 살고 있었다. 부모는 자식에게

전염병이 옮기면 가족 모두가 죽을 것 같아서 멀리 숨어버렸다. 한겨울이었다. 아들은 며칠째가 돼도 부모가 나타나지 않자, 부모를 찾기 위하여 먼 길을 나섰다. 여동생은 오빠가 죽은 줄도 모르고 언덕에서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배고픔과 추위로 얼어 죽었다. 여동생이 죽은 자리에서 한 그루의 느티나무가 자라났다. 마을 주민들은 전설에 나오는 여동생의 넋을 기리고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하여 정월 대보름날에 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제를 지내고 있다. 즉 정월 대보름날은 커다란 느티나무에 하얀 천을 끼운 새끼를 칭칭 두르고 제를 지내면서 축제를 하는 날이다. 동네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가 전주한옥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온 당산목으로 여기고 있다. 최근에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하여 이 느티나무를 찾고 있다.